



# NEWS REVIEW

- 르포/골판지 포장배추 출하시연회를 가다
- 골판지 포장재 지원 삭감 '원성'
- [돈버는 출하요령]무·배추 포장 '신뢰를 생명처럼'
- “농업인 사용 편한 포장재 개발을”
- 수도권 도매시장 배추포장시범사업 '산뜻한 출발'
- 무 등 골판지 지원금 인하 '잡음'
- 포장배추 서울가락시장 출하 혜택 '두배'
- 비성수기 수박 포장 출하 '가속화'

## 르포/ 골판지 포장배추 출하시연회를 가다

"상품 손상 최소화엔 딱인데..."

고랭지 배추 출하작업이 한창인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예밀2리 만경사. 지난 19~20일 이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추 포장화 사업을 앞두고 한국골판지 포장공업협동조합과 전국농산물 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이하 전유련)가 공동 주최한 골판지포장배추 출하시연회가 열려 농민들과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골판지 포장재 생산 관계자 등 유통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고랭지 배추 출하작업이 한창인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예밀2리 만경사.

▶잔손 많이가 작업 불편 · 망포장 비해 단가 너무 높은 게 '흠'

지난 19~20일 이곳에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추 포장화 사업을 앞두고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골판지포장배추 출하시연회가 열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규격 포장재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구매 단가에 대한 부담으로 출하주들이 꺼려했던 골판지 상자가 과연 배추 포장재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따라서 농민들과 산지유통인, 중도매인, 골판지 포장재 생산 관계자 등 총 56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일만큼 유통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실제 시연회가 실시된 2000여 평 규모의 작업장은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석(50)씨가 매입한 배추 밭으로 올해 강원지역의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예년 못지않은 작황 호조를 이뤘다. 결국도 크고 단단해 상품성에 대한 참관한 중도매인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이날 시연회에 사용된 포장재는 골판지협동조합이 제공한 개당 720원 상당의 골판지 상자 4000개, 한국발포스티렌협재활용협회가 지원한 스티로폼 상자 1대분이 공급됐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류종우 이사는 "오늘 행사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는 압축강도가 500kgf 이상의 고강도로 충격에 강하고, 자체적으로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종이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배추의 포장재로 적합할 것"이라며 "또 상자당 배추 3포기를 수납할 수 있어 규격 포장과 유통 투명성 확보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망 포장에 익숙한 인부들은 골판지 상자가 작업에 다소 불편함을 호소했다.

배추 출하 12년 경력의 작업반장 김중학 씨는 "망에 비해 골판지 상자는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지만 작업 시 상자를 접고 아랫면을 테이프로 봉합해야

하는 등 잔손이 많이 가고, 또한 상자를 일일이 옮기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감이 있다”며 “오늘 작업장은 경사가 거의 없고, 차량의 이동이 용이해 골판지 작업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사가 심한 고랭지 배추밭에서 상자 작업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추 포장 출하 작업을 직접 시행하는 인부와 산지 유통인 대부분이 작업 편의성과 비용 절감에서는 망 포장을, 상품성 유지는 골판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또한 일부 산지유통인들은 시장 내에서 원활한 회수만 보장된다면 접이식 플라스틱 상자도 충분히 물류시스템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스티로폼의 경우 부피가 커 운송 비용이 과다 지출될 우려가 있고, 포장 작업시에도 이동이 불편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10시가 가까워지자 가락시장 출하를 위해 작업을 마친 포장 배추를 운송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라면박스 크기와 비슷한 550×366×196(mm)배추 상자는 5톤 트럭 한대당 총 726개가 실렸는데 이날 오후까지 골판지 상자 3대와 망 포장 2대 등 총 5대의 분량이 가락시장에 최종 반입됐다.

경매 결과 이날 출하된 골판지 상자는 개당 7200~7600원, 망 포장은 7300~8000원에 거래됐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일 60대 가량 반입됐던 배추가 갑작스런 출하량 증가로 이날 총 120여대로 늘면서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경매를 통해 아직까지는 중도매인들이 골판지 상자보다 망 포장을 선호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배추 포장화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효율성과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대다수가 이용하는 망 포장보다는 골판지 상자나 플라스틱 상자로 포장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20원에 불과한 망보다 5배 이상 값비싼 골판지 상자의 가격 인하가 절실하고, 또한 골판지 상자를 이용하는 산지유통인들 역시 철저한 선별·출하로서 중도매인과 소비자들에게 상품 신뢰도를 확보, 가격 경쟁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아청과 이상용 차장은 “대부분의 출하자들이 아직까지는 눈으로 상품성이 바로 확인되는 망 포장에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담아 출하하다보니 중도매인들도 골판지보다는 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골판지 상자가 포장재로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고기능 저단가 상자의 대량 보급과 함께 고가 자재에는 고품질의 상품을 선별·출하하는 산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지유통인연합회 김종석 사업부회장은 “실제 시연을 해본 결과 배추의 상품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골판지 상자로 출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정부의 포장재비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하

고 골판지 상자 상품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중도매인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만 산지에서도 충분히 골판지 출하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배추 포장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기간동안 그물망과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출하분

에 대해서는 각각 120원, 480원, 438원의 포장 비용을 보조할 방침이다.

2006-9-25  
제1891호/ 유통/ 이동광 기자

### 골판지 포장재 지원 삭감 '원성'

서울시공사, 배추 포장화 따라 35% 축소

▶시범사업 제외된 무까지 줄여 '반발 고조'

가락시장의 배추포장화 시범사업 중 골판지상자 포장재 지원단가가 35% 삭감돼 출하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무까지 파장이 확산돼 출하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농수산물공사(공사)는 수도권 배추포장화 시범사업에 즈음해 9월부터 골판지포장배추 출하자에 농림부와 별도로 상자당 630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410원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지원단가 조정은 출하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돼 골판지상자로 포장출하를 준비 해 왔던 산지 출하자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농림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의 경우 가락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이 골판지상자로 출하되는 실정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 이광형 사무총

장은 "수도권에서 가락시장의 거래비중이 70%를 차지해 포장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6월부 논의해 지원단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일방적으로 번복해서는 안되며 최소한 무만이라도 지원단가를 원상복구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고두신 농산물류팀장은 "정부 및 공사 지원단가를 합치면 배추포장골판지 구입단가를 초과해 조정이 이뤄졌다"며 "무도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재조정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2006-9-18  
제1889호/ 유통/ 이동광 기자

농민신문

[돈버는 출하요령]무·배추 포장 '신뢰를 생명처럼'

무·배추 포장출하요령

정부가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 무·배추 전량 포장출하를 앞둔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의 무·배추 전문법인인 대아청과(㈜)가 제값 받는 포장출하 요령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상용 대아청과 기획차장은 “산지와 소비시장의 상품가치 평가기준이 다소 달라 출하자들이 제값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산지의 노력이 선행돼야 포장화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다”고 발표배경을 설명했다. 대아청과가 발표한 제값 받는 무·배추 포장출하 요령을 알아 본다.

◆소비지시장을 읽어라=상품의 크기보다는 균일하게 선별·출하하는 것이 값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절구가 덜 된 48망 크기의 배추는 잘 다듬고 선별해 45망 크기에 넣어 출하한다.

크기를 맞춘 무를 골판지상자에 담아 출하할 때 공간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작은 무 하나를 더 끼워 넣지 말자. 덩으로 넣은 무가 오히려 속박이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흠이 될 수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자=누구나 자기 지식

이 제일 예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출하한 무·배추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에 들어오면 상품은 중도메인과 경매사의 객관적인 시각에 따라 판별된다. 나의 주관적인 기준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출하자들의 상품과 비교해보고, 구매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한번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자=이름만 가지고도 높은 값을 받는 출하자가 있는가 하면, 좋은 상품을 출하하고도 속박이한 이력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출하자가 있다.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속박이를 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신용을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다시 회복하기엔 오랜 시일이 필요하다.

◆돈 되는 출하요령 따로 있다 = 배추를 그 물망에 출하할 경우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골라 팽팽하게 넣는다. 가급적 크기가 같은 것끼리 망에 담고, 불가피하게 등급별로 섞어 출하할 때는 구분 적재해 송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골판지상자 출하 무도 균일한 크기로 넣고, 수량을 꼭 적는다.

비를 맞으며 작업할 때는 상품 사이에 신문지를 넣어 짓무름 등을 막아 상품성을 보존한다. 또 출하자가 가급적 출하작업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면 작업인부들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한다.

- ◆이런 출하 습관은 버리자=결구가 미흡한 것, 옷자란 것, 크기가 다른 상품을 섞어 출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두께 등급 이상을 혼재해 출하하거나 두발의 물량

을 작업할 때 구분 적재하지 않고, 송품장에 수량을 표시하지 않는 습관은 청산해야 한다.

차량 바깥쪽에는 좋은 상품을 쌓고, 안쪽에는 등외품으로 속박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를 불러온다.

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 “농업인 사용 편한 포장재 개발을”

무·배추 포장출하의 보완점을 찾기 위한 포장출하시연회에서 작업인부들이 골판지상자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 영월서 고랭지배추 포장출하 시연회

내년 무·배추 전면 포장유통을 앞두고 산지의 포장작업과 출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을 찾기 위한 고랭지배추 포장출하 시연회가 지난 20일 강원 영월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과 (사)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고, 서울 가락시장·골판지 포장 업체·산지유통인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시연회에는 망·골판지상자·플라스틱상자 등의 다양한 포장재가 시험됐고, 각 포장재에 대한 장·단점이 면밀히 파악됐다.

그 결과 망 포장은 지지대를 만들어 사용할 경우 일하기 쉽고, 작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판지상자는 찌그러짐 방지를 위해 강도와 발수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플라스틱상자는 상자 폐기가 힘들고, 지게차를 쓸 수 없는 비탈진 밭의 경우 손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연회에 참석한 산지 및 시장 관계자들은 “배추·무 포장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하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살린 포장재 개발과 함께 적정가격의 질 좋은 포장재의 공급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월=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 수도권 도매시장 배추포장시범사업 '산뜻한 출발'

농림부의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시범사업 첫날인 1일의 상황을 점검해본 결과, 수도권 8대 도매시장에 반입된 배추는 경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망이나 골판지상자에 담겨져 출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올 1월부터 무·배추 포장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가락시장·강서시장을 비롯한 경기 안양과 안산, 인천 구월·삼산도매시장에는 전량 포장배추만이 출하됐다. 반면 경기 구리시장과 수원시장은 일부 배추가 산물 형태로 들어왔다.

같은 날, 인근 서울 청량리시장과 영등포시

장 등 유사 도매시장에는 산물 출하가 주를 이뤘지만, 그동안 거의 볼 수 없었던 망 배추도 거래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현 추세대로라면 별 탈없이 포장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채록 농림부 유통정책과 사무관은 “산지에서 배추 포장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지역 일부 도매시장에 산물 배추가 들어오긴 했으나 대부분 포장품이었고, 앞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에 포장 출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 무 등 골판지 지원금 인하 '잡음'

가락시장 “예산없어 불가피” ... 출하 농가 “일방통보” 불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골판지 출하 무·배추의 포장재비 지원단가를 뒤늦게 하향조정해 농업인 등 출하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일 가락시장에 골판지상자로 출하되는 무·배추의 포장재 지원금을 630원에서 410원으로 35% 줄이고, 이를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는 “농림부가 9~10월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을 하면서 포장재비를 지원하는 데다, 공사의 자체 예산이 부족해 지원단

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출하주들은 “지원단가를 낮춘다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정부의 포장화 시범사업 당일에 통보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일 가락시장에 무를 출하한 한 농업인은 “경매장에 와서 포장재비 지원단가가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골판지상자를 미리 제작해놓았는데, 지원금을 갑자기 낮추면 농가더러 어떡하라는 거냐”며 항변했다.

이광형 (사)전국산지유통인증양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사는 포장재비의 지원단가 조정

이 불가피했다면 사실을 미리 설명해주고, 최소한 시행 15일 전에는 알려줘야 했다”며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공문만 보내는 것은 출하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승로 농수산물공사 농산물류 팀 과장은 “8월에 무가 전량 골판지상자로 출

하되면서 지원금의 지출이 크게 늘어 단가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며 “올 연말까지 포장화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추후에도 추가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 포장배추 서울가락시장 출하 혜택 ‘두배’

서울 가락시장으로 포장배추를 출하하면 포장재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농림부 9~10월 시범사업으로 포장비 지급

서울 가락시장으로 9~10월에 포장배추를 출하하면 포장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오는 9~10월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수도권 8대 공영도매시장으로 포장배추를 출하하는 출하자에게는 그물망 한망당 120원, 골판지상자 한장당 480원, 플라스틱상자는 한개당 438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올해 1월부터 가락시장에 포장배추를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그물망 60원, 골판지상자 630원, 플라스틱상자 190원의 포장재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가락시장으로 포장배추를 출하하는 출하자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와 농림부로부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수도권 타 지역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보다 포장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더 절감할 수 있다.

가락시장으로 포장배추를 출하하는 농업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그물망의 경우 180원, 골판지상자는 1,110원, 플라스틱상자는 628원이다.

이에 따라 9~10월에 배추를 그물망이나 골판지 상자에 담아 가락시장으로 출하할 경우 출하주의 포장재비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

다만, 농수산물공사와 농림부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한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출하해야만 한다. 규격포장품에는 품목·산지·등급·무게·포장재 규격·생산자명·연락처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노현숙 기자  
rhsook@nongmin.com



## 비성수기 수박 포장 출하 '가속화'

한 구리시장의 중도매인이 수박 성출하기 때 산물수박을 경락받은 뒤 자체적으로 골판지상자에 포장하고 있어 수박 포장화의 급속 진전을 실감케 하고 있다.

### 매장 효율성 높아 소형 판매점 선호

수박 포장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예년 이맘때의 경우 아직까지 산물출하가 대세를 이룰 시점이지만, 최근 도매시장엔 산물수박 출하가 급격히 줄고, 포장출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산물출하가 10% 내외, 경기 구리시장은 산물출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골판지상자에 2통씩 담겨져 포장출하되고 있다.

이재희 (주)중앙청과 경매과장은 “그동안 포장수박은 12~4월에 한정돼 출하되고, 5~9월 초는 산물출하가 도매시장의 대세를 차지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2~3년 전부터는 8월 중순 이후 출하량의 포장화가 급속히 진행됐고, 올해의 경우 이 시기의 포장화가 자리잡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조수택 서울청과(주) 경매부장은 “포장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는 성출하기인 5~8월 중순까지만 산물출하가 이뤄지고 있고, 산물 출하철에도 포장수박 출하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공주·부여·논산·천안·무안 등지의 주산지 농협뿐만 아니

라 상당수 산지수집상도 포장수박을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슈퍼마켓 등 중소형 판매점들이 산물수박을 보관하거나 판매할 때 매장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포장수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내의 한 슈퍼마켓 사장은 “하루 판매량이 10통도 되지 않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산물수박이 아닌 포장수박을 취급해야 매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수박 성출하기에도 포장수박만을 취급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경기 구리시장 등지의 일부 중도매인들은 7~8월 수박 성출하기에 산물로 출하된 수박을 골판지상자에 포장한 뒤 주거래처로 공급하는 실정이다.

천호진 농협구리공판장 경매차장은 “성출하기 이외의 시기엔 포장화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성출하기에도 포장수박 출하가 늘 것으로 예상돼 수박 포장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우균·노현숙 기자  
wknam@nongmin.com